

“아열대 작물, 전남 새 소득작물로 육성해야”

보성서 ‘전남농협 아열대작물 아카데미클럽 워크숍’

나주·영암 한라봉, 고흥·보성 바나나, 여수·순천 올리브 재배 적합

“전남은 한반도 아열대화의 시작점이자, 대륙성기후와 해양성기후의 특성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한반도 미래 기후의 축소판이다. 기후 변화에 따른 미래 농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6~27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아열대 작물 재배 희망농가와 전남농협 아열대작물 아카데미클럽 회원 등 100여명이 아열대작물 재배법에 대해 열린 토론회를 했다. 전남농협 아열대작물 아카데미클럽 워크숍에서다.

워크숍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을 신 소득농산물로 발굴·육성해 농가 소득을 높이자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남 아열대작물 아카데미클럽 회원과 전남농업기술원 전문가들이 아열대작물 재배 노

하우를 교류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나주 한라봉, ‘고흥 커피’, ‘영광 애플망고’..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전남이 아열대농작물 재배지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전남농업기술원은 아열대 작물 재배지도로 새로 그렸다. 나주·영암·무안 등 중부서해안권은 한라봉·레드향·부지화 등 만감류를 중심으로 한 5개 작목을, 고흥·보성 등 남부해안권은 바나나·애플망고·파인애플·커피 등 7개 작목을, 여수·순천 등 동남경제자유권은 애플망고·백향과·올리브 등 3개 작목을, 담양·장성 등 북부산간권은 파파야·아스파라거스 등 6개 작목을 각각 지정, 단지화·규모화해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라봉, 비파, 석류, 망고, 파파야 등 주요 아열대 과수 재배농가는 전체 1123농가에 달했다. 2017년 861농가에서 30.4% 늘어났다. 재배 면적도 249.7ha에서 393.2ha로 57.5% 증가했다.

작물로는 비파 재배가 가장 많았다. 완도 124농가 71ha 등 총 97.2ha에서 재배되고 있다.

한라봉은 전남에서 180 농가가 65.6ha 규모로 재배하며 신소득 작목으로 떠올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나주(69 농가·27.7ha)이다. 나주 한라봉은 7~8과 1박스(3kg) 기준 2만~2만5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해남(11ha), 고흥(8.5ha), 진도(5ha) 등으로 재배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봉을 제외하고 대표 만감류로 꼽히는 레드향 역시 장흥, 고흥, 장성 등 80 농가(24.6ha)에서 재배하고 있고 천혜향

(30 농가·5.7ha), 황금향(7 농가·1.4ha)도 재배지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아열대 채소 부문에서는 주로 참채소로 쓰이는 콜라비가 효자품목으로 떠올랐다. 전남 콜라비 재배 면적(32.9ha)은 전체 아열대 채소 재배면적(68.2ha)의 48.3%를 차지한다. 특히 신안(27 농가·20ha), 해남(41 농가·12ha) 지역 재배가 대부분이었다.

전남도는 이를 활용해 국립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등을 건립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김석기 농협 전남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소득 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늘리고, 귀농·청년의 농촌 유입으로 농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농협은 국내산 아열대작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판로 개척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소재·부품산업

대·중소기업 상생 포럼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일본 수출규제 극복을 위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소재·부품 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광주에서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한국산학협동연구원과 공동으로 27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광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광주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올바른 분위기를 조성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열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박상철 광주지방조정청장, 안남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기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중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소재·부품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경쟁의 기준이 개별 기업에서 기업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며 “밸류체인 경쟁력 관점에서 대·중소기업 간 관계를 일방적·시혜적 지원 관계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체제에 기반한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격상하고 공정경쟁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친환경자동차 부품기업의 채용박람회 27일 광주시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렸다. 부대행사로 열린 도시락 토크쇼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도시락을 먹으며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자동차 부품기업 채용 박람회 구직자 발길 이어져

100여개 기업·1100여명 구직자 참여 현장면접·취업 컨설팅

광주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부품기업 채용 박람회에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27일 광주 빛고을 체육관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기업 채용박람회에는 지역 100여개 부품기업과 1100여명 구직자가 참여해 현장 면접, 취업 컨설팅 등을 했다. (주)경희, (주)고아정공, (주)금호HT,

(주)대우에이텍, (주)무등기업, 한국알프스, (주)현성오토텍, (주)호원 등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현장 면접에 참여했다. 앞으로 구인 모집 공고 등을 통해 많은 구직자가 채용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안전 인증기관인 자동차 안전원에서는 2021년까지 광주 빛그린 산단에 설립되

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를 소개하고 연구인력 채용계획 등을 설명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소개하는 토크쇼, 직업 상담, 청년 고용정책 홍보 행사 등도 펼쳐졌다.

광주시는 이번 박람회가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원활한 인재채용과 함께 구직자에게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취업의 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27.85 (+6.50) ▼ 금리(국고채 3년) 1.46 (-0.02)
▼ 코스닥 647.39 (-4.20) ▲ 환율(USD) 1177.20 (+0.50)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56호점 선정식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7일 오후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보금자리지역 아동센터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56호점 선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56호점으로 선정된 보금자리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아동복지시설로 지역 아동 25명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학습지도를 받고 있다.

이날 광주은행은 개인별 사물함을 새로 설치하고, 아동들의 키에 맞는 배식대와 학습용 좌식테이블을 선물해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새롭게 꾸며진 공부방에서 광주은행 지역사회봉사단 직원들은 준비해간 간식을 아동들과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춘우 광주은행 부행장은 “지역 아동들이 새롭게 꾸며진 공부방에서 건강하게 꿈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호남지방통계청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7일 광주시 서구 동천동 나라기움 광주통합청사에 입주했다. <호남통계청 제공>

호남통계청·광주전남중기청, 동천동 광주통합청사 입주

호남지방통계청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7일 광주시 서구 동천동에 건립한 나라기움 광주통합청사 입주 기념식을 했다.

기념식에는 강신욱 통계청장,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실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총사업비 347억원이 투입된 나라기움 광주통합청사는 연면적 1만6685㎡,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다.

1층은 회의실과 공용민원실로 사용되며, 2층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이, 3~5층은 호남지방통계청이 사용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